

JDI 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MONTLY NEWSLETTER OF JDI ACCOUNTING & TAX SERVICES

2017년 7월호 (2017-1)

CONTENTS

- a. 인사말
- b. 세무정보
- LLC 와 S-Corp 의 차이점
- 오바마 케어의 현주소
- c. 추천도서
- d. 7월달의 중요한 Date

인사말

안녕하세요 JDI 회계법인의 이정원 회계사입니다.

JDI 뉴스레터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및 세법을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달의 회계법인이 해야 할 일을 날짜로 일리드러 고객들이 회계법인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회계법인이 되어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LLC 와 S-Corp 의 차이점

차이점을 설명들이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아니 기업을 셋업 하는 이유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자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회사 자산 까지만 일고 개인에게는 책임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체 주인에 게까지도 책임을 묻고자 하기에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LLC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 공식적으로 회의와 회의록 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회수를 할 때 동업자간 합의하에 다른 비율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 상에는 LLC 의 멤버들은 개인사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연간 수익의 15.3% 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S-Corp 의 특징입니다.

(1) LLC 와 달리 일을 하는 주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처리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3% 에 해당하는 세금은 월급액에 환해서만 내게 됩니다. 나머지 수익은 분배 (Distribution) 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15.3% 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일을 하는 주주는 납득할 수 있는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 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많은 한국 비즈니스분들은 15.3% 세금을 줄이고자 S-Corp 을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주는 꼭 적당한 월급을 가져가야 의무가 있습니다. 적당한 월급이 얼마인지는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S-Corp 이면서 월급처리를 안 할 경우 IRS 는 S-Corp 의 지위를 박탈하여 C-Corp 이나 LLC 로 변화를 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디 S-Corp 은 적당한 월급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의 현주소

연방상원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의무가입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건강보험법안의 수정안을 지난 22 일 공개한 가운데 이번 법안이 의회를 실제 통과할 경우 한인 등 미국 내 보험가입자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안은 국내 빈곤층과 장애인 등이 의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완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혜택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외면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만 치중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연방상원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 전면폐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 폐지,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 폐지,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하원법안의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다시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제도하의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법안에는 2021년 폐지로 시점이 늦춰졌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지급 기준도 오바마 케어처럼 다시 소득기준으로 환원하되 그 대상을 헌행 연방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낮춰 지금 대상을 축소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어떻게 되나

▲상원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은 완전히 사라진다.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은 전국민들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들은 그동안 벌금을 지불해 왔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업주들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는

▲연방 상원 법안에 따르면 일부 업주들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케어는 사업체가 월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풀타임 상응직원 수가 50人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지만, 연방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졌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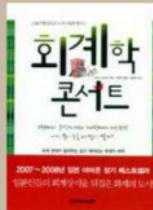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 주민 중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경우 오바마케어에서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연방 빈곤선 350% 이하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하지만 26세 이하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케어와 보험 혜택에 있어 큰 차이가 생기나

▲오바마 케어의 경우 임산부 관리, 약 처방, 어린이 치과 진료, 정신건강 진료 등의 최소 보험 보장 요건을 보장했지만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주정부가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연방 정부의 낙태 보조금 지원은 아예 없애는 등 여성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출처 한국일보 6/26 일자)

결론: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도 세금보고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이 없어집니다. 또한 보조금 계산 방법도 소득/연령/지역에 따라 세액공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꼭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매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은 “회계학 콘서트”라는 책이며 제가 회계공부를 시작할때 읽어던 책으로써 비지니스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추천해 드립니다.

일본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 일본인들의 회계상식을 뒤집은 회계의 도서! 이 책은 회계와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유기가 한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게 되면서 회계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내고 있다. 회전초밥 집의 가장 비싼 메뉴가 실상 큰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이유,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가격에도 잘 팔리는 이유, 심야영업을 하는 슈퍼마켓이 증가하는 이유 등 일상 속 원리를 통해 재밌고도 유익한 회계 원리를 배울 수 있다.

7월의 중요한 DATE

날짜	회계 법인 업무	고객에 요청사항 및 노트
7/17/17	6 월달 급여세 납부	6 월달 종업원 급여 정보를 7/10 일까지 부탁드립니다.
7/20/17	6 월달 Sales Tax 계산 및 납부	6 월달 세일즈 정보 혹은 은행 Statement 를 7/15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31/17	2 분기 급여 보고	2 분기 급여서를 25 일까지 계산하여 이메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